



금융감독원

보 도 자 료



금융은 통통하게 소비자 행복하게

보도	2023.1.24.(수) 조간	배포	2024.1.23.(화)	
담당부서	금융투자검사3국	책임자	국 장	최상두 (02-3145-7830)
		담당자	팀 장	장재훈 (02-3145-7832)

사모운용사의 단순·반복적인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법규위반을 최소화하겠습니다.

- 주 요 내 용 -

- ◆ 신생·소규모 사모운용사 임직원들이 관련법규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단순·반복적인 법규위반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습니다.
- 경미한 위반사항이라도 반복적인 법규위반은 투자자보호를 저해하고 시장참여자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.
-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단순·반복적인 법규위반을 근절하기 위하여 주요 지적사례 유형별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.

주요 유의사항

- ✓ 운용사는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펀드를 운용해야 하며, 펀드에 속한 자산은 원리금 회수 가능성을 감안하여 명확한 근거에 따라 공정가액으로 평가해야 합니다.
- ✓ 펀드편입 주식이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의결권 행사 뿐만 아니라 미행사의 경우에도 그 내용 및 사유를 공시해야 합니다.
- ✓ 집행임원,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 금융회사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.
- ✓ 임원·준법감시인·업무집행책임자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금융위(금감원)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 (임원의 경우 금융회사 및 협회등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의무도 있음)
- ✓ 위험관리기준은 선언적 수준의 내용이 아닌, 각 펀드에 내재된 고유위험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적인 매뉴얼 등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.

- ◆ 금번 유의사항 안내를 통하여 신생·소규모 사모운용사의 법규이해도가 제고됨으로써 자산운용업계의 내부통제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I. 주요 지적사례 및 유의사항

- 금감원의 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검사 과정에서 주요 적발되는 단순·반복적인 지적사례는 자본시장법과 지배구조법 위반으로 구분되며, 주요 지적사항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
유형별 주요 지적사항

자본시장법 위반		
집합투자재산 운용 관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운용 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	[자본시장법 제85조] [자본시장법 제238조] 과태료부과
보고 의무· 공시의무 위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경영·부수업무 보고의무 위반 의결권 행사·미행사 내역 공시의무 위반 	[자본시장법 제40조, 제41조] [자본시장법 제87조] 과태료부과 과태료부과
지배구조법 위반		
임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임원의 겸직제한 위반 임원의 선임·해임 관련 공시 및 보고의무 위반 	[지배구조법 제10조] [지배구조법 제7조] 과태료부과 과태료부과
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준법감시인·위험관리책임자 미선임 준법감시인·위험관리책임자 겸직금지 의무 위반 	[지배구조법 제25조, 제28조] [지배구조법 제29조] 과태료부과 과태료부과
위험관리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위험관리기준 마련 의무 위반 	[지배구조법 제27조] 과태료부과

- (자본시장법) 집합투자규약 위반, 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, 경영·부수업무 보고의무 위반, 의결권 행사·미행사 내용 공시의무 위반 등
 - (지배구조법) 임원 겸직제한 위반, 임원 선임·해임 보고·공시의무 위반, 준법감시인·위험관리책임자 미선임, 준법감시인·위험관리책임자 겸직금지 의무 위반, 위험관리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
- 단순·반복적인 법규위반사항이라도 기관 또는 임직원 제재 및 과태료 등 금전조치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
- 각 유형별 유의사항 및 관련법규를 반드시 숙지하시어 법규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.

1 집합투자재산 운용 관련

가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

◆ **[관련제도]**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이나 투자설명서, 핵심상품 설명서를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안됨

- **(위반내용)** 펀드 설정 당시 집합투자규약에 투자대상 취득한도를 오류기재하였거나, 편입비율 위반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계속 운용
- **(유의사항①)** 집합투자업자는 편입대상, 편입비율(최소비율, 최대비율), 투자한도 등을 준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함
 - 외부회계감사에 따른 계정과목 재분류로 인하여 투자한도, 레버리지 비율 등이 초과할 수 있으므로 당초 회계기준에 맞추어 계정과목을 제대로 분류할 필요
 - ※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혜택이 부여되는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면서 규약을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
 - †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(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), 제91조의15(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) 등의 세제혜택
- **(유의사항②)** 집합투자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등의 위반이 다수 발생하였음
 - 집합투자규약 상 펀드 운용방법으로 제시하지 않은 수익증권 편입, 금전 대여 등을 통하여 펀드 유동자금을 운용하는 등 동 규약을 위반

주요 지적사례

- ▶ A자산운용은 OO펀드의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된 △△법인에 대한 투자한도 등 집합투자재산 규약상 투자한도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
- ▶ B자산운용은 OO펀드와 관련하여 집합투자규약에 증권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명시하였음에도 실제로는 P2P대출채권에 투자함으로써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

나

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

◆ **[관련제도]**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에 따라 평가하되,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해야 함

- **(위반내용)** 부실화된 원리금채권을 합리적 근거없이 과대평가하거나,
 - 원리금연체가 발생하여 부실우려단계 채권이 되었음에도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, 공정가치로 미평가

- **(유의사항①)**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등* 부실화된 자산은 원리금 회수 가능성을 감안하여 부실우려단계, 발생단계, 개선단계, 악화단계 등 4단계로 분류하여 적정하게 평가하여야 함

* 부도채권등이란 발행인의 부도, 채무자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절차 진행 등으로 인하여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회수가 곤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증권

- 집합투자재산이 보유한 증권등과 관련하여 ①이자 1회 연체, ②1개월 이상 조업중단, ③최근 3개월 이내 1차 부도발생한 경우 부실우려단계 채권등으로 분류하여야 함

- **(유의사항②)** 집합투자업자는 발생단계로 분류되는 부도채권 원금은 분류일에 원금의 100분의 80 이상을 상각처리 하여야 하며,

- 명확한 근거 없이* 원금의 100분의 20 보다 높게 평가할 수 없음

* 부도채권 등 원리금 회수가능성 및 회수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평가한 가액을 근거로 상각가능(이 경우 판단 근거자료를 보관·유지하여야 함)

주요 지적사례

- ▶ C자산운용은 대출채권 차주의 폐업 등으로 회수가 곤란할 것이 명백한 OO펀드에 편입된 대출채권과 AA사 발행 전환사채 등 총 000억원의 펀드자산에 대하여 C자산운용이 전환사채 발행 AA사에게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조기상환청구를 청구하였으나, 상환되지 않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도채권 등으로 분류·평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

2 보고 · 공시의무 관련

가 겸영 · 부수업무 보고의무 위반

◆ **[관련제도]** 금융투자업자는 겸영 · 부수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기 시작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(금융감독원)에 보고하여야 함

- **(위반내용)** 겸영 · 부수업무 보고대상 업무범위를 오인하였거나, 보고의무 법규를 미숙지
- **(유의사항)** 운용사는 겸영 · 부수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업무를 영위하기 시작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금융위(금감원)에 보고하여야 함

주요 지적사례

- ▶ D자산운용은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는 겸영 업무로서 대출중개 · 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영위할 수 없음에도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면서 대출채권 중개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
- ▶ E자산운용은 PF대출 전환자문, 시공사 선정 등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한 자문 및 컨설팅 업무를 영위하고 대가를 수취하며 금융위원회에 부수업무를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

나 의결권 행사 · 미행사 내용 공시의무 위반

◆ **[관련제도]** 집합투자업자는 펀드 편입주식이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해당되는 경우 의결권 행사내용 및 구체적인 사유를 공시하여야 함

- **(위반내용)**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만 공시해야하는 것으로 조문 오인
- **(유의사항)** 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을 소유한 주식을 발행한 주권상장법인의 경우
 -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연도의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· 미행사내용 및 사유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(DART) 또는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(KIND)에 공시하여야 함

주요 지적사례

- ▶ F자산운용은 OO등 5개 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Z사 등 의결권 공시대상법인 5개 주식의 의결권을 해당법인 주주총회에서 행사하였음에도 의결권 행사내용 및 사유를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

3 임원 임면 및 겸직 관련

가 임원의 겸직제한 위반

◆ **[관련제도]** 금융회사 상근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

- **(위반내용)** 운용사의 상근임원이 다른 영리법인에 사내이사로 종사하며 상시업무를 수행
- **(유의사항)** 운용사의 상근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며 투자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상시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됨

*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산운용의 대표이사가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로 상시업무에 종사하는 것도 불가함

주요 지적사례

▶ G자산운용 대표이사 乙은 본인이 주요주주인 Y사의 제반 경영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있음

나 임원 선임·해임 보고·공시의무 위반

◆ **[관련제도]** 집행임원,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 임원을 선임(해임)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선임(해임)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여부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(금융감독원)에 보고하여야 함

- **(위반내용)** 집행임원을 임원으로 보지 않거나, 임원 선임 사실만 보고하고 해임사실은 미보고
- **(유의사항)** 임원을 선임하려는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한 임원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확인하고,
 -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과 임기·담당업무·직위를 선임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①금융위(금감원)에 보고하고, ②금융회사 및 ③협회등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모두 공시하여야 함(해임의 경우도 보고공시의무 동일)
 - 집행임원, 업무집행책임자도 임원에 해당하므로 동기임원과 동일하게 보고·공시의무를 준수하여야 함

주요 지적사례

▶ H자산운용은 업무집행책임자로 근무한 사실상의 임원의 선임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

4 준법감시인 ·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및 겸직 관련

가 준법감시인 · 위험관리책임자 미선임

- ◆ **[관련제도]**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려는 경우 이사회의를 거쳐야 하며,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총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함
 - 금융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,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1명 두어야 함

- **(위반내용)** 준법감시인의 갑작스러운 퇴사 혹은 질병발생으로 인한 휴직으로 후임자 선임까지 준법감시인이 부재 발생
- **(유의사항)** 예측불가능하고 불가항력적인 전임자의 유고 등이 발생하여 준법감시인등이 불가피하게 부재한 경우에도 운용사는 후임자 선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

주요 지적사례

- ▶ 자산운용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관련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

나 준법감시인 · 위험관리책임자 겸직금지 의무 위반

- ◆ **[관련제도]**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,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및 그 부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함

- **(위반내용)** 운용업무 담당직원의 부재, 업무숙련도 미숙 등의 사유로 준법감시인 등이 운용지시 등 펀드 운용업무에 직접 관여
- **(유의사항)** 운용사 준법감시인 · 위험관리책임자는 운용사 고유재산을 포함한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됨

주요 지적사례

- ▶ 자산운용 준법감시인 乙은 상무 丙의 지시에 따라 매매계약서 송부, 운용지시서 작성 및 송부 등 집합투자재산 운용 · 운용지시 업무를 상시적 · 지속적으로 수행하고,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등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
 - ※ 제재가 진행중인 사건이므로 사정에 따라 지적 및 조치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

5 위험관리기준 관련

가 위험관리기준 마련 의무 위반

◆ **[관련제도]** 금융투자업자는 경영건전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, 위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적절한 체계를 구축·시행하여야 하며,

-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, 그 밖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 인식·평가·감사·통제하는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(위험관리기준)를 마련하여야 함

- **(위반내용)** 위험관리기준이 아예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, 선언적 수준의 리스크관리규정만 마련하여, 새로운 유형의 펀드에 내재된 위험요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였음
- **(유의사항①)** 위험관리기준에는 위험관리의 기본방침, 위험의 종류, 인식, 측정 및 관리, 금융회사가 부담가능한 위험수준의 설정, 적정 투자 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의 승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,
 -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 및 위험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도 마련되어야 함
- **(유의사항②)** 위험관리 규정상 위험의 인식·측정 및 대응 필요성에 대한 선언적인 내용만 포함하는 것은 부족할 수 있으며,
 - 재간접형, 해외투자 펀드 등 구조가 복잡한 펀드의 경우 투자대상 및 투자구조 등의 고유위험*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적인 매뉴얼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음

* 각 펀드가 내재하고 있는 신용위험, 법률위험, 거시경제 지표 및 예상치 못한 정치 및 경제상황에 따른 위험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

주요 지적사례

- ▶ K자산운용은 P2P연계대부업자의 납품업체(차주)에 대한 상품매입·생산자금 대출채권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00펀드를 설정·운용하면서 차주사의 연체 및 상환불이행 등 투자대상 자산의 고유위험 뿐 아니라, 차주사의 용도와 대출금 사용 및 담보물 미확보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투자대상 P2P대출채권의 선정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위험관리절차, 위험의 인식·측정·관리체계, 위험관리 비상계획 등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

II.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

- 금감원은 사모운용사에서 주로 발생하는 단순·반복적인 지적사례에 대한 관련법규, 유의사항을 상세히 제시함에 따라
 - 운용사 임직원의 자체적인 내부통제 강화 및 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.
- 금번 보도자료 배포와 함께 동 유의사항을 금융투자협회 및 전체 사모운용사에 안내하는 한편,
 -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운용사 내부통제 담당자 및 준법감시인 등과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위법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.
 - 또한, 운용사가 신규 등록할 경우에도 동 유의사항을 제공하여 의도치 않은 법규위반을 예방하는 조치도 병행하겠습니다.

※ 금번 보도자료를 통해 안내하는 지적사례는 빈번하게 적발되는 주요사례를 법령, 규정 등에 따라 유의사항을 안내한 자료로 모든 규제사항을 포괄하고 있지 않으며, 관련 법령 개정 등에 따라 해당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업무 수행시에는 법령 및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